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광주의 아들’ 이승기 샛별 됐다

2011 K리그 신인왕 등극 … MVP 이동국

광주의 프랜차이즈 스타 이승기가 2011 K리그 신인왕에 등극했다.

광주 FC의 미드필더 이승기는 6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K리그 시상식에서 2011 최고의 신인 선수에 선정됐다.

금호고를 졸업하고 울산대를 거쳐 고향팀 유니폼을 입은 이승기는 출입 기자단 투표에서 총 115표 가운데 57표를 받으면서 강력한 경쟁자 포항의 고무열(48표)을 9표 차이로 누르고 신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승기는 올 시즌 27경기에 출전해 8골(2도움)을 기록하며 광주 돌풍의 중심에 섰다. 역대 시민구단 창단 첫해 최다승(9승) 기록을 쓴 신생팀 광주 FC는 이승기를 비롯해 박기동·김동섭·이용 등 4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한데 이어 신인왕까지 가져오며 K리그의 새 역사를 썼다.

전북 현대의 스트라이커 이동국은 생애 두 번째 최우수선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동국은 총 115표 가운데 86표를 얻으면서 공격수 데얀(14표·서울)과 수비수 곽태휘(12표·울산), 공격수 염기훈(2표·수원), 미드필더 윤빛가람(1표·경남)의 추격을 가볍게 물리치고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지난 2009년에 이어 2년만의 MVP 수상이다.

이동국은 올 시즌 16골을 몰아넣으며 득점 2위에 올랐고, 도움은 15개를 기록하면서 K리그 역대 최다 기록을 작성했다. 올 시즌 득점왕에 오르면서 이동국은 K리그 사상 최초로 MVP와 신인왕, 득점왕 그리고 도움왕 등 4개의 개인상을 모두 수상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화끈한 공격 축구로 전북 현대의 우승을 이끈 최강희 감독은 107표를 쓸어담으며 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됐다. 올해의 베스트팀상은 전북에게 돌아갔고 페어플레이상은 FC 서울의 몫이 됐다. 포항제철고는 유소년 클럽상을 받았다.

베스트일레븐에는 ▲공격수 이동국·데얀 ▲미드필더 염기훈·윤빛가람·하대성(서울)·에닝요(전북) ▲수비수 박원재(전북)·곽태휘·조성환·최철순(이상 전북) ▲골키퍼 김영광(울산)이 선정됐다.

한편 경기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져 투병생활을 해온 제주 신영록은 이날 시상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시상자로 나선 신영록은 지난 5월8일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를 해준 ‘생명의 은인’ 김장열 재활 트레이너(제주)에게 공로상을 수여하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영광의 얼굴들 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성환(DF), 곽태휘(DF), 최강희 감독, 이동국(FW), 염기훈(FW), 이승기(FW), 최철순(DF), 윤빛가람(MF), 김영광(GK), 하대성(MF). /연합뉴스

“축구선수 이승기시대 열겠다”

신인왕 수상 소감 … 전북 최강희 감독 러브콜도

“가수 이승기가 아닌 축구선수 이승기의 시대를 열겠다.”

광주 FC 이승기가 생애 단 한 번만 주어지는 신인상을 명중시켰다.

6일 K리그 시상식에서 포항 고무열과의 접전 끝에 신인상을 품에 안은 이승기는 “그동안 이승기라는 가수에 가려져 있었는데 신인왕을 타면서 기사도 더 나오고, 앞으로 검색할때 축구 선수 이승기가 먼저 나오면 좋겠다”고 젊은 선수다운 톡톡 튀는 소감을 밝혔다.

광주서초-광주북성중-금호고를 졸업한 이승기는 울산대를 거쳐 광주 FC 유니폼을 입으며 고향에서 프로에 첫 발을 내디딘 광주의 프랜차이즈 스타.

177㎝의 아담한 체격이지만 예리한 슈팅과 발재간이 돋보인다. 울산대 주장으로 활약했던 지난해에는 전국대학 대회 득점왕에 오르는 등 공격적인 성향의 미드필더다.

이승기는 “신인왕은 생각하지 못했다. 고무열이나 윤일록이 상을 타면 축하해주자고 생각해서 소감을 준비하지도 못했다”며 “7월부터 꾸준하게 뛴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팀 공헌도에서 앞선다고 생각은 했다. 지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졌다고도 생각 안했다”고 당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프로데뷔 첫해 조광래 월드컵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아 지난달 11일 아랍에미리트와의 월드컵 예선을 통해 A매치에 데뷔하고, 신인왕까지 거머쥐며 최고의 한해를 보냈지만 이승기의 시작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이승기는 “개막을 1주일 앞두고 발목 부상을 당해 프로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다”며 “내년 시즌에도 신인이라는 마음 가짐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한발 더 뛰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한편 이승기는 이날 최우수 감독에 선정된 전북 최강희 감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기도 했다. 최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이승기를 영입하고 싶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신인왕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의 이승기가 6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신인선수상을 받은 후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챔스리그 ‘兩朴 대결’

맨유 박지성-바젤 박주호 선발 출장

팀 16강 진출권 확보 마지막 승부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박주호(바젤)가 2011-201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권 확보를 향한 마지막 승부에서 ‘양박(朴) 대결’을 펼친다.

맨유와 바젤은 8일 오전 4시45분(한국시간) 스위스 바젤의 상트 야콥 파크에서 UEFA 챔피언스리그 C조 조별리그 6차전을 치른다.

C조에서는 벤피카(포르투갈)가 2승3무(승점 9)로 맨유(승점 9)와 동률을 이뤘지만 상대전적에서 앞서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하고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맨유는 이번 바젤과의 최종전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만 16강에 합류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바젤 역시 이번 맨유전에서 지면 16강에서 탈락하게 돼 총력전이 예상된다.

맨유와 바젤은 지난 9월 2차전에서 만나 3-3으로 비겼다.

맨유는 톰 클레벌리와 안데르손, 마이클 오언 등 주전급 자원들이 부상인 상황에서 지난 4일 ‘골잡이’ 하비에르 에르난데스까지 발목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하면서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된다.

이 때문에 맨유는 중원은 물론 좌·우 날개에서 모두 뛸 수 있는 전천후 공격수인 박지성의 활약이 절실해졌다.

이에 맞서 2002-2003시즌 이후 무려 9년만에 16강 진출을 노리는 바젤에는 한국인 수비수 박주호가 버티고 있다.

박주호는 지난 9월 맨유와의 2차전에서 왼쪽 풀백으로 선발출전해 풀타임을 뛰면서 바젤의 수비라인에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

‘초롱이’ 이영표 美 밴쿠버FC 새둥지

1년 계약 … 내년 1월 합류

올해 태극마크를 반납한 ‘초롱이’ 이영표(34)가 미국프로축구(MLS) 밴쿠버 화이트캡스FC에 새롭게 둥지를 튼다.

이영표의 에이전트사인 ㈜지쎈은 6일 “이영표가 캐나다에서 현지시간으로 5일 밴쿠버와의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추가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 조항을 뒀다”고 밝혔다.

세부 계약 내용은 구단과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영표는 현지시간으로 7일 오전 밴쿠버에서 공식 입단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영표가 택한 밴쿠버는 이번 시즌 MLS 서부콘퍼런스(9개 팀)에서 6승10무18패(승점 28점)로 꼴찌에 그친 약체다. 이 때문에 밴쿠버는 내년 시즌을 대비해 수비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베테랑 수비수인 이영표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영표는 국내에서 연말을 보내고 내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팀 훈련에 합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대호 日 오릭스 입단

2년간 110억 계약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에서 자유계약선수(FA)로 풀린 ‘거포’ 이대호(29)가 내년부터 오릭스 버펄로스 유니폼을 입고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서 뛴다.

오릭스는 6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호와 내년부터 2년간 계약금 2억엔, 연봉 2억5000만엔, 인센티브 3000만엔 등 총 7억6000만엔(약 110억5000만원)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본에 진출했던 한국 선수로는 2004년 이승엽(2년 5억엔), 2009년 김태균(3년 7억엔)을 뛰어넘는 규모다.

오릭스는 이대호가 원 소속구단인 롯데와 우선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이대호와 접촉해 계약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임동 사거리 · 일신방직 · 하남 · 임동오거리 · 신안사거리 · 광주여고 · 한국카랜드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클리닉,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이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밧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닦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카악세사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걱정 끝
임동 자동차거리 중간사거리(20번집)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차종 ~~17만원~~ ⇒ 12만원
▸아이나비KL100, 3D(8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5만원~~ ⇒ 47만원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3만원~~ ⇒ 45만원
▸만도지니 J7,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5만원~~ ⇒ 45만원
▸트립형 매입차량은 상담후결정
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매립장착모델 | 전차종가능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만도 블랙박스 BN100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본인네비 매립 =~~17만원~~ ⇒ 12만원
▸후방카메라 =~~15만원~~ ⇒ 9만원
▸샤크안테나 =~~10만원~~ ⇒ 6만원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35만원~~ ⇒ 30만원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22만원~~ ⇒ 19만원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37만원~~ ⇒ 33만원
샤크안테타 및 통합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지카 | 스타트버튼
참고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향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E770B 40만원
▲ E1 7만원
▲ EZ5500 25만원
▲ EZ620 10~14만원
▲ E7-S 43만원 / E7-B 51만원
▲ E7 37만원
▲ ET 17만원